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올 전쟁광기

2월에 들어서서도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지난 1일 조선서해상공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와 스렐스전투폭격기들을 끌어들여 올해 첫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은 남조선호전광들은 3일에도 미국의 스렐스전투폭격기들인 《F-22》, 《F-35B》, 《F-16》 전투기들과 함께 련합공중훈련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 《능력과 의지의 과시》니, 《경고메쎄지》니 하고 떠들어대였다.

공화국의 절대적힘과 군사적강세에 질겁한 전쟁대포밥, 식민지하수인의 허세성객기이고 자멸적인 만용이 아닐수 없다.

제힘이 아니라 외세의 힘을 믿고 흰소리치는 얼간망둥이들이 바로 남조선호전광들이다.

하지만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는다고 그럴수록 공화국에 비한 군사적렬세로 인한 숙명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는 저들의 가련한 신세만을 드러낼뿐이다.

지난 한해 윤석열역적패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린 각종 전쟁연습때문에 최악의 민생고에 전쟁불안까지 겹쳐안고 이중삼중의 고통속에 살아온 남조선사람들이다.

지금도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날치는 윤석열의 오판때문에 진짜 전쟁난다, 전쟁나기 전에 윤석열을 퇴진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가는것은 외세의 전쟁머슴군, 북침돌격대노릇을 하는 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하늘에 닿았음을 잘 말해준다.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은 저들의 모든 불장난소동을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광고하면서 저들의 음흉한 속심을 가리워보려고 획책하고있다.

하지만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듯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날로 더욱 격화시키며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 평화의 극악한 파괴자는 다름아닌 미국과 그의 전쟁머슴군인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외세와 야합한 전쟁대결소동으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남조선민심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소망을 짓밟는다면 제손으로 제 목줄을 조이는 결과만 초래할것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인권도살자들의 무지한 대결망동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인권》모략소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얼마전 윤석열역도는 아래것들앞에서 《북인권》문제는 《안보》문제라느니, 《인권침해》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느니 하고 궤쳐댔다. 역도의 이러한 망발에 곡조를 맞추어 《통일부》, 《외교부》것들도 《북인권재단》을 다시 꾸린다, 미국과의 《북인권》협의체를 재가동한다 하며 북닥소동을 피우고있다.

그런가 하면 인간쓰레기들을 긁어모아 돈을 쥐여주며 반공화국 삐라살포에 내몰 흉심을 드러내고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위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에 먹칠해보려는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인 공화국의 인권실상에 대해서는 남조선인터네트에 실린 글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수 있다.

《북은 미국이 아무리 제재해도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없고 웃으면서 새 아빠트도 짓고 정말 잘사네.》, 《나도 저런 곳에서 살아보았으면.》, 《우리는 집을 구하려고 령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하는데 북은 공짜로 집을 준다.》, 《저런 나라가 존재한다는것이 신기하다.》, 《이참에 다 북에 가자.》

이것은 지난해 공화국에서 진행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와 송화거리 준공식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반향이다.

국난의 시련속에서도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의 지상락원을 꾸려가는 공화국에 대한 남조선인민심의 동경은 이처럼 높고 열렬하다.

하다면 남조선의 인권실태는 어떠한가.

현재 윤석열역도가 추진하는 친기업경제정책으로 남조선에서는 백만장자가 전해보다 11만 6 000여명이나 더 늘어난 반면 5만여개의 기업이 파산되였으며 그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되여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가정채무는 무려 1조 3 800여억US$로 불어났고 무주택자는 940만명에 달하고있다. 또한 새해벽두부터 난방비가 2배 이상 올라 1월에만도 345명이 자기 집에서 얼어죽었다.

《백만장자는 늘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폐업하자고 해도 폐업할 돈이 없다.》,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민심은 이렇게 한탄과 원망인데 역적패당은 미국의 패권전략의 산물인 《인디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한미일경제안보대화》에 선참으로 가담하여 남조선의 《경제주권》을 통채로 상전에게 섬기는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오죽하면 남조선언론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역도의 친미굴종적인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적자》에 사상최고의 가계채무까지 겹쳐 《무서운 세쌍둥이》가 들이닥쳤다, 남조선경제는 미국에 계속 털리우게 될것이다, 경제파탄은 처참한 민생고로 이어지고있다고 개탄하고있겠는가.

역적패당의 사대매국정책과 친재벌, 친기업정책, 반인민적악정과 무지무능으로 남조선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적모순이 날로 격화되리라는 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해 도탄과 절망에서 헤매이는 남조선의 민생이고 곧 인권실상이다.

남조선을 세상에 둘도 없는 인권과 민생의 무덤으로 만들고있는 인권도살자들이 저들의 추악상은 당반에 얹어놓고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하고 대결악담질, 망동질을 하고있는것이다.

역적패당의 《북인권》모략소동은 최강의 핵보유국의 군사적강세로 불안과 공포에 질린자들이 인권문제까지 대결수단으로 악용해보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이기도 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피폐한 민생을 완전히 도륙내고 조선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화근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윤재앙때문에 진짜 전쟁날수 있다.》, 《전쟁나기 전에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하면서 윤석열퇴진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은 그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피로 얼룩지고 악취풍기는 제 손부터 닦아야 할것이다.

리 명 운

정치간상배들의 볼썽사나운 추태

남조선에서 《국민의힘》것들이 당지도부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역도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저마끔 열을 올리고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자리를 넘겨다보는 후보라는자들은 친윤석열계이건 비윤석열계이건 모두가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 더 잘 뒤받침하겠다고 침방울을 튕기며 윤석열역도에게 아부의 추파를 던지고있다.

이자들로 말하면 모두가 권력과 치부를 위해 여기저기 둥지를 옮긴 《정치철새》들이거나 부패전과자들이다.

이런자들이 무지무능하고 우직스러운 윤석열역도의 《성공》을 위해 뛴다는것도 세상웃기는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고 더우기는 이러한 추물들의 힘을 빌려 정치기반을 다지려는 윤석열역도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정치간상배라 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속에 윤석열역도는 당대표선거에 로골적으로 개입하며 《국민의힘》을 자기의 사당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역도는 《대통령》은 당내부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전례도 무시하고 친윤계 따로, 비윤계 따로 먹자판에 끌어들여 이리 추어주고 저리 추어주면서 자기의 심복을 당대표자리에 올려놓으려 하고있다.

윤석열역도와 《국민의힘》것들이 놀아대는 행태를 놓고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여당이 윤석열의 개인정당으로 되고있다, 윤석열《정부》출범이후 여당의 첫 《전당대회》가 《윤심확인대회》로 전락하고있다고 야유조소하고있다.

추악한 정치적야욕을 위해서는 《정치철새》이든, 부패전과자이든 가림없이 끌어당기는 윤석열역도와 정치적신조같은것은 집어던지고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역도에게 무조건 아부하는 시정배들의 무리인 《국민의힘》것들에게 새 정치, 새 생활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남조선 각계층이 《그놈이 그놈이다.》, 《썩은 정치판을 갈아엎자.》고 하면서 들고일어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박 남 수

《안방정치》에 놀아나는 정치무능아

암탉이 꼬끼요 하니 수탉은 구구구 한다는 말이 있다.

녀편네의 줌안에 꼭 쥐여 숨도 바로 쉬지 못하고 사는 가련한 존재, 《안방정치》에 휘말려 안팎으로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 된 속물이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들출수록 구린내나는 역도의 부패상을 최근 남조선에서 대단한 인기속에 진행되고있는 윤석열, 김건희풍자그림 전시회의 대표적그림들을 통하여 파헤쳐보기로 하자.

《건희마당쇠》

남조선예술단체들이 출품한 풍자그림가운데는 《해먹을 결심》이라는 표제를 단 그림도 있다.

그림은 윤석열의 녀편네 김건희의 큼직한 얼굴을 중심으로 그밑에 역도와 《천공스승》의 추악한 낯짝이 그려져있으며 《대통령실 사저공사 수의계약》이라는 글도 씌여있다고 한다.

미신에 빠진 녀편네의 말을 듣고 청와대에서 뛰쳐나와 룡산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막대한 혈세를 탕진한 역도를 야유조소하고 비난하는 그림이다.

이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도 녀편네의 인형놀음이나 하는 윤석열역도의 추악상을 볼수 있다.

이미 《대통령》후보시절부터 《윤석열이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산다.》는 김건희의 말을 들으며 앞치마두른 《세대주》노릇이나 해온자가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녀편네의 눈총 한번에도 자라목 움츠리듯하는 역도이니 오지랖넓게 여기저기를 싸다니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녀편네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뱅긋 한다는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녀편네가 《1급보안시설》인 《대통령》사무실내부를 내외에 공개하여도 그만, 《대통령실》에 자기 회사직원들을 끌어들여도 아닌보살, 민간인들을 각종 행사에 끌고다녀도 못본척,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에 불응하는것도 모르는척 하는것이 윤석열역도의 《국정운영》실태이다.

그래놓으니 《대통령실》의 참모라는것들도 모든 의견을 김건희를 통해 역도에게 보고하고 검찰것들은 김건희의 각종 《국정》개입의혹을 외면하면서 《김건희수호대》로 자처해나서고있는것이다.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흰목을 뽑았던 윤석열역도가 룡산에 둥지를 틀 때의 결심이란 결국 충실한 《건희마당쇠》역할이나 《해먹을 결심》이 아니였겠는가.

벌거벗은 《왕》

먼 옛날 무식한데다 허파에 바람만 짝 들어찬 어떤 왕이 《바보들의 눈에는 안보이는 옷》이라고 한 재단사에 의해 옷을 벗고 추하게 놀아대다가 망신을 당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그 옛말속의 주인공도 울고 갈 21세기의 《벌거벗은 천치》가 다름아닌 윤석열역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시된 풍자그림중에는 벌거벗은 윤석열이 김건희를 품에 안은채 칼을 휘두르는 그림도 있다.

요사스런 녀편네의 치마자락이나 움켜쥐고 무지와 무능으로 세계적망신만을 자초하고 《개혁》으로 도금된 반인민적악정의 칼을 휘두르며 남조선을 《검찰공화국》으로,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어놓은 역도에 대한 끓어번지는 증오심이 풍자그림에 고스란히 반영되여있다.

오늘날 《바보들의 눈에는 안보이는 옷》이라며 윤석열역도를 하나하나 벌거벗기는것은 그 누구도 아닌 그의 녀편네 김건희이다.

각종 부정부패사건을 꼬리처럼 달고다니는 김건희를 감싸안느라 윤석열역도는 이미 《공정》의 옷을 스스로 벗어던졌다.

해외행각때에는 분수없이 싸돌아다니며 생색내기에 여념없는 녀편네를 비호하느라 서푼짜리 《상식》도 말짱 드러내였다.

뿐만아니라 《내가 거들어주어야 제대로 하는 바보다.》고 한 김건희의 평대로 녀편네의 손탁에 놀아대다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분야만이 아니라 력사와 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유식한 대통령》의 알몸을 남김없이 드러내놓았다.

남조선 각계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윤석열역도와 김건희의 라체화는 미술가의 풍자적환상에 의한 창조물이기 전에 명백히 역도가 스스로 새겨넣은 추악한 자화상이라고 해야 마땅할것이다.

《건희대통령》

최근 남조선 어디서나 허다하게 들을수 있는 말이 있다.

《건희대통령》

가짜얼굴, 가짜학력, 가짜경력으로 낯부끄러운줄 모르고 돌아치며 윤석열역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놓은 김건희가 진짜 《상왕》이라는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이번 그림전시회에서도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술병이 나딩구는 바닥에 취해 쓰러진 윤석열역도우에 올라타있는 김건희.

《술통령》으로 불리우는 윤석열역도의 추악한 본태와 역도우에 올라서 《녀왕》행세를 하며 《국정》을 롱단하는 김건희에 대한 민심의 강한 불만이 풍자로 분출한것이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기 전부터 김건희는 《내가 청와대에 가면 전부 감옥에 보낼것이다.》,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고 희떱게 떠벌이며 자기의 흑심을 숨기지 않았다.

권력을 가로타고앉은 지금에는 윤석열역도에 의해 《김건희의 복수극》이 펼쳐지고있다.

《권력을 잡으면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알아서 처리할것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했던 김건희의 《예언》과 《경고》에 따라 윤석열역도는 검찰, 경찰을 내세워 저들의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무시해치우거나 무마시키고있으며 도리여 이전 《정부》출신과 야당의 인물들을 직권람용, 권리행사방해, 부정부패 등의 의혹혐의로 정치보복을 가하고있다.

지어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로동운동단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한다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자기의 추문과 부정부패행위를 공개한 진보언론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던 김건희의 앙심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서울의 소리》와 《MBC》를 비롯한 언론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매장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녀편네의 치마바람에 휘청거리고있는 윤석열역도의 정치는 그야말로 《건희정치》인것이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김건희가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국정》을 휘젓게 된것은 허수아비 윤석열역도의 《공》이 분명한것이다.

권력의 감투는 분명 윤석열역도가 썼지만 권력의 지휘봉은 녀편네가 틀어쥐였으니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라고 아니 말할수 없는것이다.

…

민심의 눈초리는 예리하며 정확하다.

정치저능아, 안보파괴자, 경제무능아, 인권말살자…

초보적인 능력도, 자질도 갖추지 못한채 녀편네의 치마폭속에서 놀아대는 역도가 분수없이 계속 《대통령》자리에 있는한 《윤석열차》로 막을 올린 역도의 풍자계주도 계속될것이다.

갈수록 고조되는 《윤석열풍자열풍》!

이것은 역도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 진 흥

《룡산유모아》

허풍을 질색

얼룩무늬군복을 걸친 룡산겁쟁이가 전방에서 목청을 돋구고있었다.

《북은 우리의 〈주적〉, 〈확전도 각오한 즉시적인 응징〉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어떻게?》

《〈한〉미동맹강화, 확장억제력보강, 〈한국형3축체계〉만 있으면야.》

둘러섰던 사병들중 누군가 중얼거렸다.

《허풍은 질색인데.》

《!!!》

등용기준

룡산에 《대통령실》이라는 회사를 내온 석열이가 《윤심의 힘》이라는 부속회사의 지사장으로 김모를 내정했다.

이에 분격한 라모가 사장실에 항의했다.

《난 〈룡산사장〉을 위해 오래동안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못한 인물을 등용하니 어떻게 된겁니까?》

인사비서가 그에게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당신은 〈윤심〉을 아직 터득하지 못하지 않았소.》

《??》

술통령의 만용

◇ 하루 화근은 식전 취한 술이요, 오장의 말은 술이 내몬다는 격언대로 복보다 해를 더 많이 주는것이 술이다. 이런 리유로 술을 가리켜 백해무익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도 그래서 생겨났을것이다. ◇ 흔히 사람들은 분별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을 가리켜 만용이라고 한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만용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역할을 하는것들중의 하나가 바로 술이다. 그래서 술군에게는 항상 만용과 객기가 따른다. 술에 취한 사람의 눈에는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무서운것도 없다. 어느한 나라의 통계자료에는 사건사고를 일으킨 자들의 대부분이 술중독자와 마약중독자라고 밝혀져있다. ◇ 남조선에서 《대통령》벙거지를 쓴 윤석열역도가 지독한 술망나니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젊어서부터 술을 지고 가라면 못지고 가도 마시고 가라면 다 마시고 간것이 역도라고 한다. 그 버릇 개 못준다고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하는 짓거리도 관저에 심복부하들을 불러다놓고 곤드레만드레 취하게 놀아댄 술판뿐이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에 윤석열이 《제일 상석에 앉아 놀고먹고 마시려고 〈대통령〉이 되였다.》는 글이 실린것은 우연한것 아니다. 술에 미치다보니 역도가 민심을 돌본다고 찾은 장마당에서 가져온것이란 민심청취가 아니라 술잔이였다. 그래서 역도에게 따라붙은것이 아마 《술통령》이라는 오명일것이다. ◇ 최근 윤석열역도가 날로 강화되는 공화국의 자위적전쟁억제력에 질겁하여 《압도적인 전쟁준비》,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확전도 각오한 즉시적인 응징》 등의 무분별한 전쟁폭언을 마구 쒜쳐댔다고 한다. 지어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의 적은 북》이라며 대결망동을 부리였다. 술에 간덩이가 부을대로 부어오른 《술통령》의 만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술에 미치면 그 피해는 본인과 여러 사람에게 미치지만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은 《술통령》이 동공이 풀어져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쑥대우에 오른 민충이 마냥 부리는 허세와 만용이 남조선에 상상 못할 무서운 재앙을 몰아오게 될것은 불보듯 뻔하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윤뚱이가 술기운에 전쟁을 부추긴다.》, 《전쟁하고싶으면 너 혼자 나가서 뒈져라.》라는 글들을 인터네트에 대대적으로 띄우는것을 보면 《술통령》으로 지탄받는 역도에 대한 사무친 증오와 저주가 그들의 가슴속에서 끓어번지고있음을 실감케 하고있다.

오만한 상전, 비굴한 친일매국노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우리 민족고유의 령토인 독도마저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며 재침야망을 드러내고있는 섬나라것들에게 비굴하게 굽신거리며 《관계개선》을 구걸하고있어 겨레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섬나라것들은 《국가안전보장전략》문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령토》라고 박아넣은데 이어 일본수상을 보좌한다는 내각자문기구를 내세워 《독도령유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떠들었다.

일본외상이라는자도 정기국회의 년례외교연설에서 《독도는 력사적사실에 비추어 일본의 고유령토》라고 궤치면서 독도강탈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였다.

섬나라족속들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망동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추악한 친일굴종행위가 불러온 극도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망동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내외의 강한 반발과 배격을 무릅쓰고 지난해에 이어 새해벽두부터 친일굴종외교에 끈질기게 매달리고있다.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금지불문제에서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것들이 물어야 할 배상금을 저들의 기업이나 단체를 비롯한 제3자가 대신 물어주는 굴욕적인 《병존적채무인수방식》을 내들었는가 하면 세인의 지탄과 우려를 자아내는 일본의 《반격능력》보유와 방위비증강, 《자위대》개편놀음까지 로골적으로 용인하는 추태를 부려 오히려 일본것들이 쾌재를 부르게 하였다.

그래놓으니 섬나라것들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조선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지배는 없었다.》, 《강제로 징용에 끌어내지 않았으므로 배상은 있을수 없다.》고 목대를 더 뻣뻣이 세우고있다.

일본의 전범기업들도 저들에게 배상책임을 씌운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자체가 《국제법위반》이라고 오히려 제편에서 큰소리를 치고있는 판이다.

하지만 역적패당은 일본에 배상금마련에 일정하게 기여하거나 후에 보상하겠다는 선의라도 보여달라고 애걸복걸하고있는가 하면 《올해가 가장 좋은 〈한〉일관계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될것》이라고 아양을 떨며 섬나라것들에게 더욱 빌붙고있다.

오직 권력부지와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위해 속에 칼을 품은 천년숙적과 한이불속에 들려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매국행위의 결과가 초래한것이 바로 일본의 오만성이고 더더욱 커진 재침야욕이며 그 발현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독도강탈책동이다.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를 한사코 부정하다 못해 우리 민족고유의 령토인 독도마저 제놈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는 섬나라것들의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망동도 그러하지만 천년숙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관계개선》을 구걸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쓸개빠진 친일역적행위 역시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만고죄악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 없이 섬나라것들에게 굽신거리며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을사오적도 무색케 할 특등친일매국노로 단죄하며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 일떠서고있는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본사기자 안 권 일

ㄱ-1578ㄷ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